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연구

A Study on Comparing Characteristics of Philippe Starck's furniture design with Ron Arad's

이진영* / Lee, Jin-Young

Abstract

Design took a radical turn in the 1980's, deconstructing the rigid ideology of the Modernism, often with great humor. Contemporary representable Avant-garde designers, Philippe Starck and Ron Arad brazenly borrowed from the "historical elements" of previous styles and created bio-morphic forms with whimsical names of furniture.

This study is proposed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contemporary design, by comparing these two furniture designers. It also covers the common factors in contemporary furniture design, and analyzes their individu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design. It helps to plan the foundation of design methods for 21C, and predict and respond to the future as a reference point.

Philippe Starck links Romantic Rationalism within Minimal style and Ron Arad links Deconstructivism within High-tech style but both of them pursue of Organic concept design in their furniture through the concept of humanism. They are able to establish a base of contemporary furniture design by adapting new conceptual form, and design process for the general public.

키워드 : 필립 스타크, 론 아라드, 가구 디자인, 의자 디자인

Keywords : Philippe Starck, Ron Arad, Furniture design, Chair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세계화의 배경 아래 디지털 혁명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과학·기술적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급변하는 시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를 이끌어갈 중요한 화두로 무엇보다 정보화와 창의성을 꼽을 수 있다. 정보화가 사회 및 산업의 구조를 새롭게 형성시키는 틀로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품과 삶의 방법을 제시한다면, 디자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창의성은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추진력의 원천으로서 정보화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기술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해결안을 도출해 낸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시대의 창의력을 가장 우수하게 향상화시킨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프랑스의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와 영국의 론 아라드(Ron Arad)를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품, 가구, 실내 및 건축 중 어느 한 특정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분야를 섭렵하며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가구디자인계에서는 자국의 국민디자이너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대의 슈퍼스타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다.

가구는 무엇보다 새로운 생활방식을 담은 원형으로서 건축에서 하지 못하는 실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두 디자이너가 그들의 철학과 시대상을 그들의 가구디자인에 어떤 새로운 방법과 재료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은 현재의 가능한 생산과 기술, 그리고 취향과 문화적 열망을 읽고 그 안의 주요 변화의 징후가 무엇인가를 이해,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디자인의 전개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사람이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게 된 과정이나 이력보다는 그들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인 작품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구체적이며 밀도 있게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가구디자인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대의 해석상에서 이들 두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디자인의 개별성과 유사성을 밝혀내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이는 곧 현대 디자인의 트렌드와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디자인의 방향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에도 실질

적으로 가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가 중점적으로 가구디자인을 활동을 전개했던 시기인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4년까지를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 기반이 되었던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의 디자인 환경과 추구하고 있는 작품세계를 기존의 문헌을 토대로 고찰하고, 그들의 대표적 가구디자인들 중 특히 의자와 선반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먼저, 가구디자인의 이론적 고찰로서, 론 아라드와 필립 스타크 작품의 활동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을 포함한 디자인 환경과 그들의 철학을 정리해 보고, 다음으로 두 디자이너가 추구했던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구디자인에서 표출되었는가를 개념, 형태, 기능, 재료 및 기법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도출된 사항과 그들의 대표 작품들을 연계하여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의 가구디자인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¹⁾

2. 현대 디자인의 언어와 흐름 및 지역별의 디자인 환경 고찰

2.1.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디자인 언어와 흐름

1980년대의 대표적 특성인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과부하 상태를 보낸 후, 지질 대로 지친 사람들은 단순함과 순수함이라는 새로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버렸다. 사람들은 보다 더 단순한 형태를 선호하였고, 디자이너들도 화려하고 요란한 장식보다는 소재의 표면 처리나 색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했다.

모더니즘을 새롭게 변안하고 있는 흐름들은 20세기를 양분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완벽하게 상이한 흐름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20세기의 흐름인 모더니즘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단절이라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적인 의미의 인용에 반해 스스로의 도그마적인 복잡함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현대’라고 정의되어진 디자인의 흐름은 포스트모던의 도그마적인 복잡함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포스트모던이 ‘역사적 은유’라는 언어 체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현대’로 일컬어지는 디자인은 이런 역사적 은유라는 디자인언어를 정복하고 단지 대상을 보고 느끼는 즉물적인 언어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모더니즘이 단순함을 추구한 언어체계를 사용하였다면 포스트모던은 복잡함을, 그리고 현대라는 의

1)본 연구는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르 꼬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연구」의 후속 비교 연구로서 상기 선행 연구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미에서의 디자인은 즉물적인 언어체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²⁾

2.2. 프랑스와 영국의 디자인 환경

(1) 프랑스의 디자인 환경

1970년대의 무기력한 문화적 특성에서 벗어나고자, 1980년 이후 프랑스 디자인계의 젊은 디자이너들은 기성의 가치와 기성의 디자인(기능주의, 합리주의)을 거부하고 안티디자인(anti design), 카운터 디자인(counter design)을 주장하기 시작했다.³⁾ 이러한 거부의 몸부림은 훗날 아방가르드한 여러 사조 즉,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적 디자인 등으로 발전하였다.⁴⁾

명석한 논리와 비판을 즐기는 주지주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존중하는 실증적 정신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명료한 카테고리의 설정을 즐기는 프랑스인의 고유한 성향은 현대 프랑스 디자인에 고급 사치품의 발달과 함께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분야의 발달을 가져왔다. 프랑스인들의 이러한 국민성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디자인’이나 ‘디자이너’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창작(Création)’, ‘창조’, ‘창작자(Créateur)’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뚜렷한 양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현대 프랑스 디자인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극도로 형태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창조적인 측면이 뛰어나며,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이미지의 개념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 형식상의 자유로움은 프랑스 디자이너의 가장 큰 매력이자 동시에 창작자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디자인과 예술 영역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며, 프랑스의 예술적 디자인이 일품적 오브제와 같은 경향이 강하도록 하였다.⁵⁾ 프랑스 디자인의 또 다른 특징적 경향은 정부가 직접 디자인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디자인 계획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가장 큰 고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능성에 중점을 둔 항공 산업, 운송기기, 기초과학, 무기 패션산업과 같은 종목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즉, 프랑스 디자인은 기능성과 장식성이 공존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2) 영국의 디자인 환경⁶⁾

1970년대 영국에서는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와 대규모 소비사회에 대한 회의, 그리고 “작은 것이 아

2)http://jungle.co.kr

3)Dormer, P, The Meaning of Modern Design, Thames & Hudson, 1990, p.304.

4)한정임, 필립 스타크의 디자인 특성과 철학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4, pp.4-5.

5)윤민희, 현대 프랑스 디자인의 경향, 경희대학교, 2000, p.98.

6)서병기, Ron Arad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통권 51호, 2003, pp.202-204.

를답다”는 새로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1980년대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구체화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예술가적 공예가(artist-craftsmen)’, ‘디자인-메이커(design-maker)’라는 신 개념의 공예가·디자이너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용도를 개의치 않는 조형적 가치 우선의 예술적 공예를, 후자는 고객 선호도에 좌우되는 대기업 경영주의의 순응을 거부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예술가적 디자인을 지향하는 디자이너를 의미한다. 론 아라드를 비롯한 많은 디자이너들이 개인 작업장을 차리고 ‘자신을 위한 디자인’에 몰두하였으며, 그 결과 영국에는 1980년대 말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개인 공방적 디자인이 하나의 큰 비즈니스분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만연하였으며, 영국의 디자인계도 1980년대 말까지 이 경향을 나름대로 반영하였으나, 그 후에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다 과격한 해체주의와 후기 산업주의라고 불리는 현상들이 새롭게 나타났다.

영국의 신진 디자이너들도 한때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에 휩쓸렸으나, 곧 이 사조를 토대로 그들만의 독자적 트렌드를 창조해내었다. 그들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즐겨 구사하던 절충, 모방, 혼성, 개작 등의 디자인 트릭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물(物) 그 자체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제까지는 본 적이 없는 과격하고도 그로테스크한 실험적 결과물들을 발표하였다. 수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은 런던을 근거지로 하여 개인 작업장을 마련하고 앞 다투어 혁신적 디자인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영국 신생 유파의 새로운 급진적 디자인 경향은 ‘해체주의’, 포스트-홀로코스트(‘Post-Holocaust’), ‘폐허적 디자인’ 등 여러 가지 별칭을 얻게 되었으며, 이들 디자이너 가운데 가장 급진적 경향을 띤 디자이너가 바로 론 아라드다.

3.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의 디자인 철학과 가구디자인 전개

3.1. 필립 스타크의 디자인 철학과 가구디자인 전개

(1)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 1949-)의 디자인 철학

기업가 정신을 견지하는 리빙 토탈(living total) 디자이너, 필립 스타크는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유쾌함을 지향하는, 미니멀리즘 특유의 세련미를 갖춘’이라는 수식어로 종종 소개되곤 한다.

이러한 필립 스타크의 디자인 철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① 휴머니스트(humanist) 성향과 낙천적 유머(humor); 스타크의 디자인 철학의 근본은 인간의 삶을 긍정하고 고양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과격한 풍자(irony)나 비꼼(cynicism) 대

신에 인간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인 유머를 디자인의 주된 성분으로 채택하였다.

② 환경과 도덕적 윤리성 중시; 스타크는 지난 15년의 과도한 디자인(Over-design)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 디자인(No design) 혹은 저가 디자인(Low design)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해야 하며, 지난 시대 과도하게 생산된 불필요한 장비들을 추방하고 꼭 필요한 소박한 제품들로 우리 주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 그는 사회에 반항을 일으키거나 생태학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건전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구매하는 것을 장려한 디자이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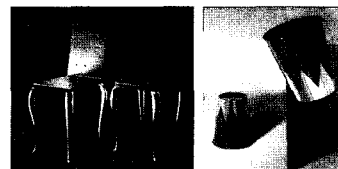
③ 사회 개혁과 디자인의 대중화에 힘쓰는 이상주의자; 필립 스타크는 그의 디자인을 알아주는 일부 소수나 부유층, 그리고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좋은 ‘물건’만들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보다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사람들의 취향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디자인에 적절히 반영할 줄 알았으며 그 시대의 카타르시스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상주의자다.

(2) 필립 스타크의 가구디자인 전개

1976년 파리의 라 맹 블루(La Main Bleu) 나이트클럽과 1978년 레 뱅 두슈(Le Bains Douches) 나이트클럽의 실내를 담당하면서 명성을 얻게 된 필립 스타크는 이후 미테랑 대통령 재임 시 엘리제궁 안에 있는 개인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 실내디자이너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1984년에는 ‘리처드 3세(Richard III)’라는 이름의 암체어를 디자인하면서 가구디자인에도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스타크의 가구디자인 전개는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① 제1기-몽상가적 시기(1982~1992년); 이 시기에 스타크는 많은 작품들을 통해 열정으로 점철된 ‘몽상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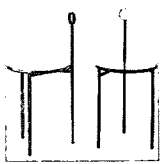
<그림 1> 로라 문도, <그림 2> 코루찌, 드리아데, 1986년, 드리아데, 1987년

스타크는 장식적인 스타일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기발하고 재미있는 작품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특징을 그의 디자인에 불어넣었다. 1986년에 장미빛 몸체로 제작된 로라 문도(Lola Mundo)는 바로크식 경향을 띠며 그 화려한 분위기는 마치 고위층의 관리인을 위해 만든 의자처럼 보이도록 한다. 또한 루이 15세 스타일의 카브리올(Cabriole) 다리는 풍부한 여성스러움을 강조한다.¹⁰⁾ 코루찌(Colucci)의 경우,

7) 이정혜, 필립 스타크 디자인 조형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4, pp.26-32.
8) www.yoo-k.co.kr 필립 스타크 강연회 영상물 중.
9) 서병기, 필립 스타크 제품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연구, Vol.15, 2000, pp.3-15.
10) 김명석 외 3명, 금속가구 가공성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 제안 및

강통 인형처럼 눈을 그려 넣고 그것을 쌓아올린 모습이 마치 양동이를 쌓아올린 듯 보이게 함으로써 유머러스함과 즐거움을 더해 준다.¹¹⁾

필립 스타크는 카페 코스테(Café Costes)의 가구를 디자인하면서 '경량성과 보관 용이성이야말로 현대성을 결정짓는 주요 성분 중 하나'라고 보고, 항구적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외양은 모던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을 강조하였다. 코스테 의자를 비롯하여 이전에 디자인한 미크빌(Mickville)과 스타크 스타일의 고전이라 불리는 폰 포겔상(Von Vogelsang), 웬디 라이트(Wendy Wright) 등의 작품들은 모두 몽상가적 특징은 덜 표현되었으나 구조가 간결한 만큼 형태의 명쾌함을 더하고 있다.



<그림 3> 미크빌, 드리아데, 1985년



<그림 4> 폰 포겔상, 드리아데, 1985년



<그림 5> 웬디 라이트, 디스폼(Disform), 1986년

그러나 1990년 W. W 스톨은 부드러운 곡선이 관능적인 알루미늄 조각품 같은 이미지를 전해주며 몽상가적 특징을 더한다.

② 제2기-사회적 도덕성과 환경주의 시기(1993~1996년); 이 시기에 필립 스타크는 기존에는 무미건조하게 여겨지던 제품들에 애완동물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도록 상징과 유머를 포함한 디자이너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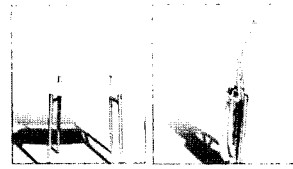


<그림 6> 프린스 아하, 카르텔, 1996년

프린스 아하 스톨(Prince Aha stool)의 경우, 의자 좌판 부분을 보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기능을 부가했다. 즉,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간편하게 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좌판을 열고 작은 물건을 수납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스톨 자체를 미니테이블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 스톨의 외관은 작고 땅딸막하며 귀여운 느낌마저 준다.¹²⁾

③ 제3기-대중주의적 사회개혁 활동 시기(1997년~현재); 이 시기는 필립 스타크가 대중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진하는 한편, 그의 디자인 컨셉을 웅변적으로 제시한 사회활동가적 활동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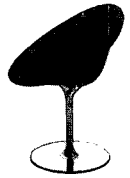
1998년에 제작된 미스 C.O.C.O.(Miss C.O.C.O.) 의자와 1999년에 만들어진 카멜레온(Cam El Eon) 의자는 분해, 조립이 가능하고 여러 개를 쌓아 올리는 것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림 7> 미스 C.O.C.O., 카씨나, 1998년



<그림 8> 카멜레온, 드리아데, 1999년



<그림 9> 에로스, 카르텔, 2001년

1950년대 임스 의자(Eames chair)의 감성을 고스란히 이어 받은 듯 자연스러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카르텔 사의 에로스(Eros)는 와인 잔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사람의 모습을 모티브로 제작된 것이다. 라 보헴(La Bohème)은 이국풍의 향아리 형태를 플라스틱이라는 현대적 재료로 재해석한 듯한 독특한 재미가 있다. 이들 작품에 사용된 플라스틱은 모두 환경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폴리탄산에스테르)이다. 또한 그의 프루프(Plouf) 시리즈는 1960년대 팝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복고적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는 듯 보인다.¹⁴⁾

32. 론 아라드의 사상과 가구디자인 전개

(1) 론 아라드(Ron Arad, 1951-)의 철학

47세의 이스라엘 출신의 영국 디자이너 론 아라드는 금속 조형 연출 부문의 거장으로서 그가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 - 20톤이나 되는 알루미늄을 섭씨 500℃에서 공기압을 이용해 성형하는 경우 등 - 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의 금속 작업은 매우 감각적이며, 항상 재료, 공정, 형태에 대한 진부한 인식에 도전하고 있다.

마티스(Matisse)나 올덴버그(Oldenburg)의 영향을 받은 아라드의 작품들은 그들의 드로잉처럼 볼륨 있고 육감적이다. 대개 그의 제품들은 소용돌이치는 선, 가득함과 공허함 사이의 격렬한 움직임, 또는 넘치는 에너지로 특징지어진다.¹⁵⁾

서병기는 『Ron Arad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론 아라드의 디자인 철학을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 제1기-해체주의 디자이너(1984~1986년); 초창기 론 아라드는 산업화된 현대의 전형적이고 유형적인 전통과 과감한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비전을 개발해냈다. 그는 이러한 해체주의 개념¹⁶⁾을 가지고 버려진 공업자재를 이용해 '하이테크적 기법'으로 일상용품을 디자인하였다. 그에게 전통적 가치는 우선적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인습에 젖어 소홀하게 취급해 왔던 잊혀진 가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가구의 경우 실내에 고정된 오브제적 성격을 지니며 그것들

교육자료, 한국산업디자인협회, 2000, p.85.

11)서병기, 필립 스타크 제품 디자인에 대하여, Op. Cit. pp.3-15.

12)한정임, Op. Cit. p.10.

13)서병기, 필립 스타크 제품 디자인에 대하여, Op. Cit. pp.3-15.

14)한정임, Op. Cit. pp.27-28.

15)http://www.ronarad.com

16)여기서의 해체주의 개념은 전통에 대한 근원적인 부정성을 통해 요소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려고 시도를 말한다.

간의 위계질서와 상호관련성을 강조하기 마련이지만, 그의 디자인은 그 같은 논리와는 절연된 가변성을 강조하며, 전형적인 형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가 의도적으로 비상업적이고 반공업적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해체주의 개념'을 시도한 것은 기성 문화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② 제2기-장인(匠人), 조각가(1987~1991년); 이 시기는 원-오프(One-Off) 공방에서의 금속가구 제작시대라고 할 수 있다. 론 아라드는 이 시기에 금속판을 자유롭게 구부리고 용접, 연다하여 다양한 의자와 소파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놀라운 그의 솜씨는 앞선 시대의 장인과 같은 호칭을 얻을 만했다.

③ 제3기-'민주적 디자인' 이념의 실천가(1992~1997년); 완속기에 접어든 아라드는 초기의 투사적 이미지를 벗고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디자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그의 작품은 초기에 비해 덜 난해하며 보다 많이 양산적 특징을 갖추게 되지만 놀랍도록 창의적이고 신선한 잠재력은 여전히 강조되었다. 자신의 가구, 즉 '민주적 가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량생산을 통해 염가로 만인에게 공급되는 가구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디자인 이념상 윌리엄 모리스식 '디자인 민주화'의 컨셉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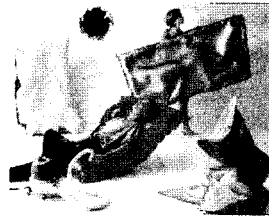
④ 제4기-낙천가(1998~현재); 1997년 이래 그가 디자인 문지 해결 방식으로써의 CAD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효율에 관해 매우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생각은 직접 실천하며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 론 아라드의 가구디자인 전개

론 아라드의 디자인 이력 또한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¹⁷⁾

① 제1기-'원-오프' 초기-실험가구의 시대(1984~1985년); 1984년에서 1991년까지 론 아라드는 '원-오프'란 건축·가구 공방 겸 쇼룸을 설립하여 장인 혹은 조각가처럼 금속 철판을 용접하여 의자를 비롯한 실험적 가구들을 단품으로 제작, 판매하였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로버 의자(Rover Chair, 1981), 트랜스포머 의자(Transformer Chair, 1981), 록킹 의자(Rocking Chair, 1984) 등은 디자인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걸작들로서, 디자인 문제를 다루는 그의 독특한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서 론 아라드의 디자인은 상업적인 세부 처리보다 오히려 '폐허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피셔(V. F.sher)는 아라드의 이러한 고유한 성향을 따로 떼어 '트랜스하이테크(Trans High-Tech)' 스타일로 분류하고 있다.¹⁸⁾

특히 트랜스포머 의자는 아라드의 출중한 산업디자이너적 역량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한 손에 쥐고 이동할 수 있고 공간을 주입하여 부풀리며 앉는 사람의 체형에 맞춰 변형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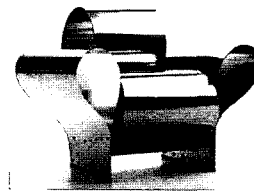


<그림 10> 트랜스포머 의자의 2000년 새로운 버전, 에어 플로우(air flow)

한 방랑적 생활을 컨셉으로 만든 휴대용 소파이다. 폴리스틸렌 펠레트를 채워 넣은 매트리스 백은 높은 사람의 신체 굴곡이 소파에 맞도록 고정됨으로써 마치 형상기억 폼 단 소재를 사용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70년대 이태리 디자이너들의 폼 경향을 지닌 주머니 의자

의 보다 발전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제2기-금속 가구의 시대(1986~93년); 1987년 이후 론 아라드는 금속가구를 주로 제작하였다. 그는 장인적 솜씨를 발휘하여 금속 판재를 능숙하게 가공·용접함으로써 웰 템퍼드 의자(Well Tempered chair), 리틀 헤비 의자(Little Heavy chair), 빅 이지 레드 소파(Big Easy Red sofa), 8×1, 스트릭트 패밀리(The Strict Family), 싱글 리트벨트(Single Rietvelt), 하이 앤드 로우 안락의자(High & Low chaise), 컬러 오브 러닝 독(Colour of Running dog), 더블 리트벨트(Double Rietvelt) 등과 같은 훌륭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림 11> 웰 템퍼드 의자, 1986-1987년

론 아라드는 이러한 금속가구들을 통해 사람이 앉는 의자나 소파는 쿠션이 있는 섬유나 가죽으로 디자인 되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었다. 1986년에 발표된 웰 템퍼드 안락의자의 강렬한 이미지는 세계의 디자인계를 경악시켰다. 이 작품에서

그는 표면 착색이나 도금을 전혀 하지 않은 브론즈 소재 자체의 특징적 질감을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냈다. 이 브론즈 의자의 전체 이미지는 마르셀 뒤샹의 팝 아트 조각을 연상시킨다. 이 밖에도 그는 이 시기에 금속가구의 수많은 연작들을 발표하였다.

1992년과 1993년에 디자인한 책꽂이 북웜(Bookworm), 북마크(Bookmark), 그리고 북(Book) 테이블 연작은 책꽂이란 수평의 선반을 갖추어야 합당하다는 통념을 뛰어넘어 유연한 곡선 선반에도 얼마든지 책을 꽂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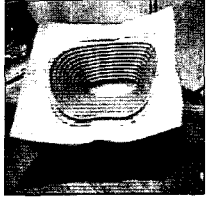
③ 제3기-양산(量産) 가구의 시대(1994~1999년); 아라드는 자신의 원-오프 공방식(design-maker적) 가구가 아닌 양산적 가구를 '민주적 가구(Democratic Furniture)'로 불렀다. 런던의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에서 칙크 팜(Chalk Farm)으로 공방을 이전한 후, 론 아라드 어쏘시에이츠(Ron Arad Associates)를 통하여 원-오프 식 가구를 판매하는 한편, 이태리, 독일 등의 제조회사에 양산 가능한 디자인을 공급하였다.

17) 론 아라드의 가구 디자인 전개는 2003년 서병기가 디자인학 연구에서 발표한 『Ron Arad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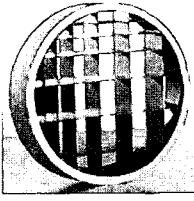
18) Fischer, V, Design Now, Prestel-Verlag, 1989, pp.45-46.

19) Fiell, Charlotte & Peter, Industrial Design A-Z, Taschen, 2000, p.34.

이렇게 양산 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하게 되면서부터 론 아라드는 자연스럽게 '네오 바로크'적인 유연한 형태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97년 작 언컷(Uncut) 암체어의 경우, 초기의 거칠고 난해한 특징은 찾아보기 힘들다. 언컷 암체



<그림 12> 언컷, 카르텔, 1997년



<그림 13> 'RTW' 창고-은닉을 위한 바퀴(Wheel for Hidden), 2000년

어와 톰-박 진공 성형 알루미늄의자는 유광의 주름진 알루미늄 좌판이 인상적인 외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상적인 미' 그 자체를 예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의 책꽂이

시리즈인 바퀴 선반(The Wheel shelf, 1992) 및 재발명 바퀴 선반(Reinventing Wheel shelf-RTW, 1997)은 커다란 원 속에 격자 형태로 구성되어 마치 큰 바퀴와 몬드리안 회화가 결합된 듯한 외양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용접과 연마를 위주로 한 원-오프 공방 스타일의 실험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미스피트(Misfit) 암체어, 유로파(Europa) 강철 암체어, 네 가지 운동을 지닌 박스 의자(Box chair in 4 Movements)가 바로 그 예다.

1998년 론 아라드 어쏘시에이츠(Ron Arad Associates)에서는 갤러리 무르망에 강철 소재의 세련된 외양을 갖춘 커피테이블과 작은 쟁반, 추상적 조각 외양의 촛대 등을 'B.O.O.P. 시리즈'란 이름으로 선보임으로써 보다 가벼운 소품류에까지 관심 품목을 넓혀 나갔다.



<그림 14> 네 가지 운동을 지닌 박스 의자, 1994년



<그림 15> 꽃병, B.O.O.P.는 성형 제작 없이 틀로 만들어진 형태임.

④ 제4기-CAD 가구의 시대(2000년~현재);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라드는 그의 작품 편력과 디자인에 중요한 변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최첨단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디자인을 전개하기 시작한 점과, 금속 일변의 가구디자인에서 범위를 넓혀 전통적 소재(천연가죽이나 인조가죽)의 가구디자인으로 영역을 넓힌 점이다. 2000년에 발표한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컬렉션(Victoria & Albert collection: 스텔, 암체어, 라운지 의자, 소파)은 놀랍게도 금속이 아닌 가죽으로 마감한 전통 소재의 가구디자인이었다. 하지만 이들 디자인을 좀더 주목해 보면 금속판을 재단하여 구부려 만든 강철가구의 또 다른 버전으로, 론 아라드 특유의 구조와 미학적 특성은 그대로 존속함을 알 수 있다. 그의 또 다른 민주적 가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소파는 1994년 유로파 암체어(Europa armchair)의 변용이며, 리틀 알버트 암체어(Little Albert armchair)의 경우, 1997년 톰-박 의자의 또 다른 변용이라 할 수 있다.

3.3.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의 디자인 철학과 가구디자인 전개 비교

앞서 다루었던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의 디자인 철학과 가구디자인 전개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필립 스타크	론 아라드
주요 디자인 철학	고정관념의 파괴-창조적 소양을 가지고 미니멀적으로 접근. 열정적 초현실주의, 다면모적 개성을 추구.	감각적인 작업과 재료, 공정을 통해 형태에 대한 진부한 인식 및 기존 문화에 도전-디자이너가 기존 가치관을 버리게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지닐 수 있음을 강조.
가구디자인의 전개	① 제1기(1982~1992년): 제품디자이너로서 자유분방한 활약을 한 웅상가적 시기로 장식적인 스타일과 기발하고 재미있는 제목의 사용을 통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닌 디자인 전개. 경량성과 용이성을 고려한 모던한 외양의 디자인 추구. ② 제2기(1993~1996년): 톰슨(Thomson) 사의 아트디렉터로 활약하며 사회적 도덕성과 환경주의적 가구디자인 전개-환경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 활용. ③ 제3기(1997년~현재): 글로벌한 제1인 즉, 무-제품(Non-Product) 위주의 소위 '좋은 물건들(Good Goods)' 운동을 통한 디자인 확산에 관심을 갖은 대중주의적 사회개혁 활동.	① '원-오프' 초기(1984~1985년): 1984년에서 1991년까지 '원-오프' 공방을 설립하여 장인 혹은 조각가 방식으로 금속 좌판을 용접하여 의자를 비롯한 실험적 가구들을 단품으로 제작. ② 금속 가구의 시대(1986~1983년): 1987년 이후 장인적 솜씨를 발휘하여 금속 판재를 능숙하게 가공·용접한 금속가구를 주로 제작. ③ 양산(量産) 가구의 시대(1994~1999년): 양산 가능한 디자인을 추구-자연스럽게 '네오 바로크'적인 유연한 형태를 가진 민주적 가구를 디자인. ④ CAD 가구의 시대(2000년~현재):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가구 디자인 전개. 금속 일변의 가구디자인에서 범위를 넓혀 전통적 소재의 가구디자인으로 영역을 넓힘.

낙천적 유머와 사회 개혁 및 환경, 도덕적 윤리를 중요시하는 필립 스타크와 장인적 기술과 솜씨로 진부한 인식에 도전을 해 온 론 아라드는 공통적으로 디자인의 대중화를 꿈꾸는 이상주의자로서 휴머니스트적인 경향을 띠며, 새로운 디자인의 접근방법을 모색하여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예술적 디자인을 추구한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필립 스타크가 열정적 초현실주의, 다면모적 개성을 부각시킨 창조적 소양을 가지고, 때로는 고전적 형태를 차용한 미니멀리즘적 접근으로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유쾌함을 지향하는 미니멀리즘 특유의 세련미를 추구하는 반면, 론 아라드는 전통적 가치보다는 잊혀지거나 버려진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기존의 물건에 새로운 소재를 결합한 하이테크적 기법의 해체주의적 접근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CAD와 같은 최신식 시스템을 이용하고 전통적 소재를 결합한 디자인 작업을 전개한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4.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인 특성 비교

다음은 두 작가의 대표적 가구들을 선별하여 형태, 기능, 재료 및 마감, 제작기법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4.1. 필립 스타크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

필립 스타크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인으로는 1984년 리처드 3세 암체어와 드리아데 사의 코스테 암체어, 1988년 닥터 글로브(Dr. Glob) 의자와 W.W. 스톨, 그리고 라 마리 의자와 2002년에 발표된 카르텔 사의 프루프 시리즈가 있다.

(1) 리처드 3세(Richard III) 암체어, 바레리(Baleri) 사, 1984년

필립 스타크의 그의 디자인관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 나는 ‘적음’과 ‘많음’, 모두를 믿는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반드시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으나 더 많은 유머와 판타지, 더 많은 사랑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때로 우리는 적은 것을 원하며, 때로는 많은 것을 원한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이다.”

필립 스타크가 1984년에 디자인한 리처드 3세 암체어는 적음과 많음에 대한 이 같은 그의 생각이 잘 표현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²⁰⁾

<표 2> 리처드 3세 디자인 분석

리처드 3세 암체어	
개요	필립 스타크가 본격적으로 가구디자인에 발을 들여놓게 된 작품. 적음과 많음에 대한 스타크의 신념을 표현한 작품.
형태	고전적 이미지 차용. 단순 명료한 디자인의 남성적 이미지의 형태-정면도에서 주는 느낌은 넓은 구조의 견고하고 심미적인 이미지. 전체적으로 단순해 보이는 윤곽은 형태를 명료하게 부각 시키며 볼륨감을 지닌 유기적 형태는 풍만함과 장식적 라인을 형성함.
기능	심미성과 암체어 고유의 기능을 수행
재료 및 마감	단단한 성형 폴리우레탄 위에 검정무광이나 메탈릭한 실버 폴리우레탄 에나멜 질로 마감. 팽창시킨 폴리우레탄과 데이크론(dacron)으로 채워진 두꺼운 가죽 쿠션의 덮개는 검정색이나 흰색이며, 쿠션과 같은 가죽으로 전체를 덮는 것도 가능.
제작 기법	플라스틱 성형 기법 폴리우레탄 성형기법

(2) 코스테(Costes) 암체어, 드리아데(Driade) 사, 1984-1985년

필립 스타크의 가구 중, 가장 유명한 코스테는 1984년 파리에 위치한 카페 코스테를 위해 디자인되었다. 스타크는 이 의자를 디자인할 당시, 공간의 활용과 사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다리

를 3개로 구성하였으며 ‘가구란 가벼워야 하고 쉽게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소비자가 쉽게(값싸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¹⁾

<표 3> 코스테 암체어 디자인 분석

코스테 암체어	
개요	필립 스타크가 1984년 프랑스 파리의 카페 코스테를 위해 디자인한 암체어로 의자가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와 공간 사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제작됨. ‘좋은 제품(Good Goods)’ 마케팅 전략최소의 재료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경제 원칙을 도입하여 최초의 700달러였던 가격을 반으로 낮추는 데에 성공.
형태	전통적인 가구 형태와 현대적 느낌이 드는 기하학적 형태의 결합. 등받이의 유연한 곡선은 직선으로 뻗은 다리와 연결되어 팔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 뒤쪽 다리는 3개의 다리모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약간 각도를 줌.
기능	사용자의 동선과 행태를 고려한 인간공학적 디자인
재료 및 마감	웨이더들이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의 수를 줄이고 보다 쉽게 손님의 주문을 기다릴 수 있도록 3개의 다리로 구성. 경량성과 보관 용이성 고려. 다리: 검정 에나멜 페인트 마감의 강관 프레임과 3개의 다리로 구성(1988년 알루미늄 버전은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구성) 등받이: 성형 합판 위에 검정색 라커 마감 혹은 월넛이나 마호가니, 체리 무늬목으로도 마감 가능. 좌판: 폴리우레탄폼에 패딩 처리한 후 검정 가죽 커버로 감싼 쿠션.
제작 기법	강관 용접 기법 굽힌 강관을 용접하여 프레임을 구성.

(3) 닥터 글로브(Dr. Glob), 카르텔(Kartell) 사, 1988년

1980년대 중반 이후, 필립 스타크는 작품의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이름을 가진 의자들을 다수 디자인하였으며, ‘플라스틱의 사용은 오직 진실한 생태학적 대담’이라고 설명하였다.

<표 4> 닥터 글로브 의자 디자인 분석

닥터 글로브 의자	
개요	탄력적인 스틸 등받이를 가진 ‘메트 블락’ 스타일의 진형인 시라피(Sarapis) 의자를 보다 발전시킨 버전으로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제품. 구조적인 강도와 혁신적인 디자인 접근을 위해 다른 재료들을 결합시킨 아이디어에서 비롯, 육중함과 가벼움의 대비를 이룸. 특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좌판은 의자에 따스함과 부드러움, 온화함과 무광택의 외관을 부여함. 닥터 글로브의 모든 버전-닥터 글로브, 미스 글로벌Miss Global, 하이 글로브(Hi Glob, 스틸 등받이로 이루어진 각각 두 가지 높이의 스톨)-은 쌓기가 가능.
형태	옆의 그림은 필립 스타크가 1985년에 디자인하고 드리아데사에서 판매한 시라피 의자로서 에나멜 마감의 강철과 강관 구조로 구성.
기능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재료 및 마감	금속과 플라스틱
제작 기법	플라스틱 성형 및 금속 밴딩 기법


20)강현주 외 8인, 열두 줄의 20세기 디자인사, 디자인하우스, 2004, p.58.

21)서병기, 필립 스타크 제품 디자인에 대하여, Op. Cit. pp.3-15.

(4) W.W. 스톨, 비트라(Vitra) 사, 1990년

W.W. 스톨의 곡선적 특징을 적용한 유기적인 형태는 차가운 기계의 개념을 탈피하여 가정에서 하나의 애완동물과 같은 이미지를 갖도록 배려한 것이다.


<표 5> W.W. 스톨 디자인 분석

W.W. 스톨		
개요		자전거 안장과 같은 외양의 좌판과 세 다리로 지탱되는 유기적 형태. 신기하고 관능적인 조각 작품 느낌 부여.
형태	자연스러운 곡선을 강조한 유기적 형태	인상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W.W. 스톨은 돌아난 뿌리의 줄기와 비슷한 모습을 지님. 첫 번째 돌아난 싹은 작은 등받이 형태로 위로 향해 있고 세 개의 뿌리는 다리의 형태를 갖추며 아래로 경사져 내려오는 형태로 구성.
기능	가능보다 미적 가치를 고려	사용자의 편리성 보다는 조형적 가치를 고려.
재료 및 마감	금속	몸체: 알루미늄
제작 기법	금속 주조 기법 및 샌드블라스트 처리	사포로 갈고 다듬은(샌드블라스트처리) 캐스트 알루미늄 위에 라커로 도장.

(5) 라 마리(La Marie) 의자, 카르텔 사, 1999년

필립 스타크의 가구는 분해, 조립 및 수납 가능한 기능적 구조를 추구함으로써 경량성, 보관용이성을 최대한 살린 합리적 디자인으로 되어있어 '미니멀리스트(Minimalistic)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작한 라 마리는 사용상 더 이상 실용적일 수 없으며, 재료 선택상 더 이상 저렴해질 수 없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의자로 디자인되었다.²²⁾


<표 6> 라 마리 의자 디자인 분석

라 마리 의자		
개요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적용한 작품. 실용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유틸리티와 매력, 그리고 상상력은 필립 스타크의 작품들에 고유한 특징을 부여함. 재료에 대한 신중하고 밀도 있는 연구 결과물인 폴리카보네이트는 굽힘과 충격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투명 의자의 생산이 가능하게 함. 라 마리는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진 디자인과 예상외로 견고한 구조와 가벼움, 그리고 모호한 이미지의 결합으로 제작될 식당에서 글로시(Glossy)처럼 세련된 테이블과 함께 사용하거나, 정원이나 외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 마리의 유연성은 어떠한 주거공간과도 완벽하게 조화됨.
형태	기하학적 형태와 원만한 곡선을 절제 있게 사용	오직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만으로 성형된 라 마리 의자는 강함과 견고함, 그리고 우아하고 가냘프며 가벼운 이미지를 지님. 작은 규모의 착속식 의자로서 제한된 공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좁고 미니멀하게 디자인됨. 6개 정도를 쌓을 수 있으며, 개방 공간에 정돈 가능.
기능	다목적 의자로서 유지 관리가 용이	경량성과 보관 용이성이 높아 사용하기 편리. 목적에 따라 실내·외 공간에 유연성 있게 사용 가능.
재료 및 마감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폴리탄산에스테르)-컬러를 주입한 투명 재료, 폴리카보네이트는 의외로 단단하고 유연성이 있으며 굽힘과 물리적 압력에도 잘 견디고 청소도 용이함. 색상: 투명 크리스탈, 바이올렛, 라이트 옐로, 라이트 오렌지, 잠릿빛 오렌지
제작 기법	플라스틱 성형 기법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기법.

22)이정혜, Op. Cit. pp.40-41.

(6) 프루프(Ploof) 시리즈, 카르텔 사, 2002년

<표 7> 프루프 시리즈 디자인 분석

프루프 시리즈		
개요		압채어와 2인용 소파가 세트인 프루프 시리즈는 혁신적인 버블 클럽 시리즈(Bubble Club series)임. 다양한 컬러의 폴리스티렌 회전 몰딩 과정을 거쳐 제작. 사용 장소에 가볍게 놓여진 4개의 작은 유광 알루미늄 다리 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드러운 느낌과 귀여운 디자인의 좌석으로 구성. 화려한 색상을 통해 밝은 이미지를 주며 어떤 내용물과도 쉽게 어울리는 순응성 재료를 사용, 풍자적이며 비형식적인 우아함을 지님.
형태	팝아트에 영향을 받은 유선형	팝아트에 영향을 받은 유기적 선을 가진 소프트한 디자인.
기능	어떠한 공간과도 어울릴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디자인	풍자적이며 비형식적인 우아함을 지닌 프루프는 가벼운 시설물이나 어떠한 가정에도 잘 조화됨.
재료 및 마감	금속 및 플라스틱	좌판: 구워 들뜬인 폴리에틸렌 위에 지정 컬러로 마감. 프레임: 산화시켜 매끈 유광 알루미늄 다리. 금속과 선명한 색상이 사용된 폴리에틸렌의 대비된 조화. 색상: 화이트, 오렌지, 연어색, 겨자색, 회색, 라벤더색
제작 기법	금속 산화 및 플라스틱 회전 성형 기법	알루미늄 산화 기법, 폴리에틸렌 회전 성형 기법

4.2. 론 아라드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

론 아라드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인으로, 초기작품인 로버 의자와 1988~1989년 작품인 빅 이지 시리즈(the Big Easy series)가 있으며, 1990년대에 상업적으로 성공한 복원 선반이 있다. 최근 작품으로는 착속식 톱-박 의자와 FPE, 그리고 가죽으로 마감한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컬렉션이 있다.²³⁾

(1) 로버 의자(Rover chair), 원-오프 사, 1981년

1980년대 초반, 영국 아방가르드의 작품들은 대개 그들의 가구디자인에 포함된 오브제들에 의해 특징지어지는데 이 같이 거칠고 편리한 작품들은 아라드의 웰 템퍼드 의자와 같은 1980년대 중반의 작품에 재료상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특징을 부여하도록 영향을 미쳤다.²⁴⁾


론 아라드의 주요 작품 중 하나인 로버 의자는 1980년대 초 페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906년도 클래식 자동차모델, 로보 2000의 의자를 들어내 거기에 융접하여 만든 굽은 형태의 강관을 붙여서 만들었다. 이것은 초기 산업혁명 시대의 고고학 유물처럼 낭만적이며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²⁵⁾

23)서병기, Ron Arad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Op. Cit. p.201.

24)김명석 외 3명, Op. Cit. p.77.

25)Domer, Peter, 강현주·조미아 역, 1945년 이후의 디자인, 시각과 언어, 1995, p.169.



<표 8> 로버 의자 디자인 분석

		로버 의자
개요		사무용이나 가정용 의자. 기존의 제품에 새로운 요소를 결합하여 제작. 두 개의 좌석으로도 제작이 가능한 로버 의자는 하이테크 스타일로 우연히도 1924년 장 프로베(Jean Prouve)의 조절 가능한 암체어의 원형과 비슷한 특성을 지님.
형태	정제되지 않은 하이테크식 디자인	강관과 철판으로 구성된 의자 좌판에 용접한 프레임을 가진 구조는 신흥 산업적 미학이 느껴지는 거친 마무리의 하이테크 스타일.
기능	인간공학적 디자인	자동차 의자를 토대로 만들어 인간공학적인 면을 자연스럽게 해결. 사무용이나 가정용으로 활용도가 높음.
재료 및 마감	자동차의 좌판과 금속 프레임	좌판: 로보 2000 자동차의 좌판 프레임: 강관 위에 에나멜 페인트로 마감
제작 기법	금속 밴딩 및 용접 기법	강관 밴딩 기법 및 용접 기법

(2) 빅 이지 (Big easy) 의자, 원-오프 사, 1988-1989년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구조적 완전함을 통해 표현해 낸 아라드의 이 특색 있는 의자는 형태의 선과 운동을 통해 그의 디자인적 관심을 힘 있게 전달하고 있다. 그가 디자인한 의자의 튀거나 움직이는 면, 또는 감각적이고 그래픽적인 라인은 강제적인 시선의 이동과 물리적으로 운동감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표 9> 빅 이지 의자 디자인 분석


		빅 이지 의자
개요	 	한번 금속판으로 작업을 시작하면 멈출 것 같지 않음. 금속 소재의 가구를 주로 제작하던 시기에 선보인 1988년 작품. 아라드의 초기 작품들보다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말끔히 정리된 빅 이지 시리즈는 높은 비용으로 제작됨. 빅 이지의 한정 품목 버전인 뉴올리언스(new orleans), 무르망 갤러리(gallery mourmans), 1999년
형태	1930년대의 유기적 형태	감각적인 그래픽 라인이 돋보이며, 과장되게 부풀려진 원기둥 형태의 팔걸이를 가진 1930년대 암체어를 닮은 하나의 유광 금속판 오브제 형태를 지님. ²⁶⁾
기능	사용상의 편리함보다는 예술 작품적 성향을 중시함	의식적으로 양산 제작을 멀리하고 '예술 가구'를 주목적으로 한 디자인과 마감 처리는 제작업체와 아라드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데에 기여.
재료 및 마감	금속과 비닐	부드러운 유광 금속판
제작 기법	금속 가공, 밴딩 및 용접 기법	금속판 가공, 밴딩 및 용접, 볼트와 너트 조인 기법

(3) 북웜(Bookworm) 선반, 카르텔 사, 1992-1993년

카르텔사에서 판매한 북웜 책꽂이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

을 거두었는데,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형태의 'S'자 궤적은 약 1,000km 길이에 달하는 양이 제조되었다고 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반으로서 형태에 대한 디자이너의 상상, 사용자의 상상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기능을 제공한다. 여백과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인터랙션이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새로운 위상을 또다시 확립하고 있다.²⁷⁾

<표 10> 책벌레 선반 디자인 분석

		북웜 선반
개요		아라드의 사출 성형 기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대로 변형이 가능한 물결모양의 곡선 선반 제작을 가능하게 함. 책과 CD 및 장식품의 진열을 위해 디자인된 북웜 선반은 몇 개의 규격화된 단일 가구 및 판넬을 원하는 형태로 조합, 분해, 조립하도록 만든 유니트(Unit) 시스템 가구. 플라스틱 리본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최소한의 필수 요소로 압축된 가구의 모습이지만, 3m, 6m, 9m 등 무한대로 연장이 가능.
형태	부드러운 유기적 형태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으며, 친밀감이 느껴지는 유기적인 형태. 늘어나는 중량에 맞도록 선반을 굽혀서 수직재를 끼워 넣도록 디자인됨. - 끼워 넣을 수 있는 각각의 수직재는 9kg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음. 크기-폭: 200mm, 높이: 1900mm, 길이: 3200mm, 5200mm, 8200mm 등으로 판매.
기능	크기와 형태의 가변성	사용공간의 크기나 책의 분량. 혹은 사용자의 취향과 환경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크기와 형태를 조절할 수 있음.
재료 및 마감	유연한 플라스틱	염소방염 PVC. 반투명의 다양한 컬러로 제작.
제작 기법	플라스틱 염색 및 염소방염, 사출 성형 기법	PVC 육용 염색 및 염소방염, 사출 성형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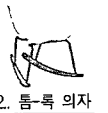
(4) 톰-박(Tom-Vac) 적층식 의자, 비트라, 1997년

1997년 도무스 토렘을 위해 개발되어 밀라노 가구박람회 전시되었고, 500개 한정 생산된 톰-박의 수집용 에디션은 모두 판매되었다. 1998년 폴리프로필렌 모델을 비트라가 생산하기 시작하여 1999년 톰-록(Tom-Rock), 톰-롤(Tom-Roll), 톰-트위스트(Tom-Twist) 세 가지 버전의 모델을 선보였다. 이것들은 톰-박 의자처럼 쌓을 수는 없으나 흔들의자, 바퀴의자, 회전 의자로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갖추고 있다.

26) <http://deathstar.artnet.com/Magazine/reviews>

27) 강현주 외 8인, Op. Cit. p.224.


<표 11> 툼-박 의자와 툼-록 의자 디자인 분석

		툼-박 쌓기식 의자
개요		밀라노 가구박람회에서 전시한 의자 조각품으로 쌓을 수 있도록 제작. '일상적인 미'를 예찬한 컨셉. 시트는 탄력적이며 크롬으로 도금한 다리에는 작은 공이 달려 있어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편하게 배치가 가능함. 툼-박 직조식 의자의 넓게 벌어진 다리는 최대의 안정성을 제공.
		임스(Charles Eames)의 RAR 흔들 암체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툼-박 좌판 및 등받이 외관에 흔들의자 베이스를 결합하여 비트라에서 제작한 의자. 최신식 시각적 언어와 완벽한 구조를 가진 단순함과 운동성을 강조함.
형태	강한 그래픽적 선을 지닌 독특한 형태	새로운 플라스틱과 같은 현대 재료의 형태적·구조적 가능성을 적용한 툼-박 의자는 아라드가 종종 보여주는 그래픽과 움직임이 있는 선들의 운동이나 유기적인 형태를 지님. ²⁸⁾ 일상적인 미가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형태. 간결하면서 강하게 시선을 끄는 곡선 처리.
기능	견고함과 심미성을 고려	도발적이거나 강한 형태를 지닌 툼-박 의자는 회의실, 공공 장소, 주거공간, 레스토랑, 호텔 및 음식점 공간 등 폭넓게 사용 가능.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편안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사무공간이나 주거공간을 포인트 장소로 연출 가능토록 함. ²⁹⁾
재료 및 마감	플라스틱과 금속	1.툼-박 의자 - 좌판: 유광의 물결무늬의 알루미늄관(500개 한정 생산된 첫 에디션), 물결 무늬를 넣은 폴리프로필렌(대량생산품) 2.리: 유광 크롬으로 코팅 처리된 스틸 프레임 2.툼-록 의자 - 좌판 및 등받: 성형 폴리프로필렌 판 다리: 크롬 스틸과 천연 비치목 러너(runner) 위에 유광 투명 도장 마감
제작 기법	금속 전공 성형 및 플라스틱 성형 기법	알루미늄 진공 성형이나 폴리프로필렌 판 성형 기법, 강판 밴딩 및 용접

(5) FPE(Fantastic Plastic Elastic), 카르텔 사, 1998년

FPE 의자는 그의 이전 작품들보다 훨씬 순화되고 말쑥한 외양을 띠고 있는데, 이 미니멀리스트한 접근은 마치 필립 스타크의 영국식 번안이라고 견줄 만하다.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한 이 의자는 경제적인 제작과정을 거치도록 디자인되었다.

<표 12> FPE 의자 디자인 분석


		FPE 의자
개요		FPE라는 이니셜 뒤에 '환상적인 플라스틱의 탄력성(Fantastic Plastic Elastic)'이라는 이름이 감추어져 있듯 이 의자는 매력적이며 길러풀하고 부드럽게 구부러져 있는 외형이 특징. 쉽게 쌓을 수 있으며 공공장소(레스토랑이나 바에서부터 작업공간에 이르기까지)와 주거공간에 특징을 부여함. 외부공간에서도 사용한 재료를 사용.
형태	단순하면서도 유기적인 선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킨 미니멀 스타일	알루미늄 튜브를 밴딩하고 잘라 두 개를 연결하여 앞다리와 뒷다리 및 등받이를 구성하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는 미니멀한 형태. 알루미늄 골격을 사용하여 전체 구조를 이룸.
기능	견고함과 경량성, 심미성을 고려	가벼운 소재로 제작된 FPE 의자는 어느 공간에서도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과 형태를 지님.
재료 및 마감	금속과 플라스틱	등받이와 좌판: 반투명의 폴리프로필렌 멤브레인 프레임: 알루미늄 튜브 폴리프로필렌과 알루미늄의 사용으로 상당히 가벼운 뿐만 아니라 견고하기까지 함.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됨. 구조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디자인-플라스틱 멤브레인은 접착제나 나사의 사용 없이 알루미늄 프레임과 구조적 결합을 이루어 의자를 제작 ³⁰⁾
제작 기법	금속 사출 성형 및 플라스틱 성형기법	알루미늄 사출 성형 및 밴딩 기술과 폴리프로필렌 판 성형 기법 - 알루미늄 골격 안에 플라스틱 멤브레인이 평평하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한번의 작동으로 구부림.

28)http://www.dwr.com/designers
29)http://www.dwr.com/productdetail
30)http://www.design-council.org.uk

(6)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컬렉션(Victoria & Albert collection), 모로소 (Moroso) 사, 2000년

가구의 독창적인 곡선이 얼마나 인상이고 눈부실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암체어의 가장 큰 성공은 모로소(Moroso) 사가 제품의 본래 형태는 유지한 채 새로운 재료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해 볼 것을 권장한 덕분이다. 이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는 회전 성형 컬러 폴리에틸렌을 이용, 대량 생산된 리틀 알버트(Little Albert) 암체어의 제작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접근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즉, 암체어의 모양은 원형 그대로이나 사용된 재료만 바뀌었고, 햇빛이나 열에 대한 내구성이 높아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리틀 알버트 암체어는 내·외부 공간 모두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표 13>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컬렉션 디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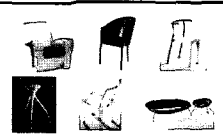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컬렉션
개요		2000년 6월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에서 열린 '이전과 현재 이후(before and after now)' 전시회에서 선보인 론 아라드의 대표적 민주적 가구. 혁신을 목적으로 한 결과물이지만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컬렉션은 론 아라드의 '조각적인 가구'와는 개념적으로 거리가 있음. 사람들이 가진 다른 상황을 위한 해결안. 소파의 경우, 아라드는 토템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고려한 전형적인 방법 안에 오브ژه가 사용되는 가능성을 표현함.
형태	역동적인 그래픽 라인이 강한 독창적 유기적 형태.	소파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필요한 기본 특징마저도 무효화시키는 외형과 무한대의 유사한 상징성을 가진 다이나믹한 형태의 단아한 외양 ³¹⁾
기능	휴식을 위한 기능고려	중간적 역할을 하는 좌우대칭의 소파는 폭신함과 함께 기능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편안하고 아늑한 장소를 제공. 리틀 알버트는 외부공간의 사용에도 적합함
재료 및 마감	플라스틱과 금속	1.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소파 몸체: 힘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스틸 지지대에 가죽 마감 혹은 벗겨낼 수 있는 천 마감의 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구조물 소파 패드: 변형이 없는 팽창 폴리우레탄 다리: 유광 스테인리스스틸-이녹스(Inox) 2 리틀 알버트 암체어 단색 폴리에틸렌을 회전 성형하여 제작한 구조. 폴리에틸렌은 완전히 재활용될 수 있는 재료임.
제작 기법	플라스틱 주형 및 회전 성형 기법	폴리우레탄 폼 주형 기법 및 폴리에틸렌 회전 성형 기법 폴리에스테르 수지 처리

4.3.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앞에서 다루었던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의 대표적 가구디자인 특성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31)김은심, 플라스틱 의자 디자인의 시대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2003, p.90.

<표 14>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 분석도

	필립 스타크	론 아라드
작품		
개념	보편타당성을 추구하는 낭만주의 경향의 합리적 디자인-객관적 완벽성 대중적인 디자인 추구. 'Good Goods' 마케팅 전략 가구를 조형적 작품으로서 이해할(정교하게 다듬어진 추상 조각 작품과 같은 느낌 부여). 구조와 재료에 대한 과학적인 통찰력.	하이테크 스타일의 해체주의적 디자인 추구-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디자인. 일상의 미를 예찬. 민주적 가구(대량생산 가구) 제작. 명쾌한 감각과 독창성 표현.
형태	형태의 단순화 및 절제성. 맞춤과 적응의 조화. 유기적 형태(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곡선미를 볼륨감 있게 표현). 장식적인 특성을 지닌 오브제 효과 부여. 고전주의 스타일 차용.	감각적 그래픽 라인과 눈의 움직임을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유기적인 형태를 제안. 긴장과 모순을 보여주는 형태. 장식적인 특성을 지닌 오브제 효과 부여.
기능	분해 및 수납 용이. 경량성과 보관 용이성. 사용자 형태 중심의 디자인.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성 강조.	주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 가능한 형태 고려.
재료 및 마감	환경주의적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나 다양한 컬러로 제작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 및 알루미늄이나 주철 같은 금속재료를 즐겨 사용.	알루미늄이나 강관 혹은 스테인리스스틸 등의 금속을 주로 사용. 성형에 적합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우레탄 폼 등의 플라스틱 재료 사용.
제작 기법	주형에 의한 제작 공법(서로 다른 재료를 주형 처리하여 조립)	금속이나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법 처리 남비가 없는 효율적인 작업과정으로 대량생산 제품 제작

① 미니멀한 접근, 열정적 초현실주의, 다면모적 개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자유분방한 감성미와 이성적인 균형미를 추구하는 필립 스타크의 낭만주의적 경향의 보편 타당적 합리주의적 개념과, 일상적 대상물의 형태를 재규정하는 독자적인 창조과정을 개척하며 환경 속에서 일상적인 미를 예찬하는 론 아라드의 하이테크 스타일의 해체주의적 디자인 개념은 두 작가의 사상 중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점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창조적 소양으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사용자의 편의 및 공간 활용을 중심으로 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추구하며, 가구를 대중과 자신을 잇는 하나의 매개체로 인식하여 민주적, 대중적인 가구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② 형태적으로, 필립 스타크는 고전적인 형태를 차용하여 절제되고 간결하면서 미니멀한 조형적 디자인으로 가구를 재창조한다. 때로는 유기적인 형태를 보다 명쾌하게 보이도록 세밀한 작업으로 마감하지만 때로는 역학적인 구조와 계산으로 얻어지는 기하학적인 비례와 순수성, 재료의 단순성과 질량의 명쾌함이 더 강조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충만한 여백의 미, 격렬한 움직임의 대비, 형태의 긴장과 모순, 현기증과 같은 환상 등을 통해 명쾌한 감각과 독창성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론 아라드의 가구디자인은 형태적으로 감각적인 그래픽 라인을 통해 눈의 이동을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유기적 형태를 강조한다. 또한

말끔히 정리된 상태보다는 거친 모습 그대로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③ 기능적으로, 필립 스타크의 가구는 주사용자의 행태와 요구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반면, 론 아라드는 사용자의 필요조건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이 가능한 적층식 의자나 형태의 변화가 가능한 가구들을 주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사용자의 행태와 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안정성과 편의성,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④ 재료와 기술면에 있어서, 필립 스타크는 곡선적인 볼륨감과 역학적 구조를 얻기 위해서 주형에 의한 제작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대개의 가구들이 서로 다른 재료를 주형 처리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보다는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와 알루미늄과 같은 주철류의 금속재료가 즐겨 사용되었다.³²⁾ 론 아라드 역시 주형이나 성형기법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가구를 제작하였으나, 그가 만든 대부분의 가구에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와 같은 금속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에 따른 생산 기법 - 성형, 용접, 밴딩, 조립 - 이 거친 마무리로 표현되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이 두 작가의 가구디자인 특성을 비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필립 스타크의 낭만주의적 경향의 합리주의적 개념과 론 아라드의 해체주의적 디자인 개념은 두 작가의 사상 중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점이나 디자인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며, 새로운 디자인의 접근방법을 모색하여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예술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두 작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형태적으로, 필립 스타크는 미니멀한 조형적 디자인과 세밀한 마감으로 가구를 재창조하고 론 아라드는 형태적으로 전통성을 부정한 해체주의적 스타일의 감각적인 그래픽 라인을 통한 유기적 형태를 강조하며 거친 모습 그대로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립 스타크의 몇몇 대표적 작품에서 론아라드의 디자인과 유사한 유기적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사용자의 행태와 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안정성과 편의성,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재료와 기술면에 있어서,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 모두 플라스틱과 금속재료를 주재료로 이를 주형, 성형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론 아라드의 가구는 특히 금속을 기본적으로 사용

32)전종찬, 세계 가구디자이너-Philippe Starck, 월간Space, 1998.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를 통해, 디자인을 할 때 대중과 사용자의 행태 및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질을 증진시키고 그 디자인을 통해 우리 주변을 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해 온 필립 스타크와 론 아라드의 철학이 그들이 디자인한 가구로 연결되어 명확히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철학에 적합하게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재료와 기법 및 작업과정을 꾸준히 연구하고 그것을 적용한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에 몰두했다는 공통점으로 현대 가구 디자인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강현주 외 8인, 열두 줄의 20세기 디자인사, 디자인하우스, 2004.
2. Collings, Matthew, Ron Arad talks to Matthew Collings, Phaidon, 2004.
3. Dormer, P. The Meaning of Modern Design, Thames & Hudson, 1990.
4. Fiell, Charlotte & Peter, Industrial Design A-Z, Taschen, 2000.
5. Fischer, V, Design Now, Prestel-Verlag, 1989.1
6. Morgan, Conway Lloyd, Philippe Starck, Universe, 1999.
7. Sudjic, Deyan, Ron Arad, Laurence King, 2001.
8. Domer, Peter, 강현주·조미아 역, 1945년 이후의 디자인, 시각과 언어, 1995.
9. 김명석 외 3명, 금속가구 가공성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 제안 및 교육자료, 한국산업디자인협회, 2000.
10. 김수정·문정인·이상호, 필립스타크의 디자인 언어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 통권44호, 2004.
11. 김은심, 플라스틱 의자 디자인의 시대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2003.
12. 서병기, Ron Arad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통권 51호, 2003.
13. 서병기, 필립 스타크 제품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연구, Vol.15, 2000.
14. 윤민희, 현대 프랑스 디자인의 경향, 경희대학교, 2000.
15. 이정혜, 필립 스타크 디자인 조형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4.
16. 한정임, 필립 스타크의 디자인 특성과 철학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4.
17. 전종찬, 세계 가구디자이너-Philippe Starck, 월간SPACE, 1998.
18. <http://www.deathstar.artnet.com/Magazine/reviews>
19. <http://www.design-council.org.uk>
20. <http://www.dwr.com>
21. <http://jungle.co.kr>
22. <http://www.ronarad.com>
23. <http://www.yoo-k.co.kr>

<접수 : 2005. 8. 30>